

大田 大井洞 後期舊石器遺蹟 發掘概報

崔鍾澤* · 朴性姬**

- | | |
|---------------|----------|
| 1. 머리말 | 3. 조사 내용 |
| 2. 유적의 위치와 환경 | 4. 맺음말 |

1. 머리말

大井洞遺蹟은 大田廣域市 儒城區 大井洞 300-2番地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大田廣域市 綜合流通團地의 건립 예정지역으로, 1999~2000년에 忠南大學校 博物館에 의해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구석기시대~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고토양층과 호온펠스제 석기 1점이 확인되어 구석기시대유적의 존재에 주목을 받았다. 이에 공사구간 내 5개 지점(총 73,689㎡)에 대하여 공사에 앞서 정밀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의뢰로 위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2000년 10월~12월, 2001년 2월~6월까지 2차에 나누어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충남대학교박물관의 시굴조사당시 설정한 5개 지점을 차례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발굴 구역의 명칭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설정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차 발굴조사는 1-1지구(12,540㎡)와 2지구(23,760㎡)를, 2차 조사에서는 1-2지구(7,590㎡), 3-1지구(28,710㎡), 3-2지구(1,089㎡)를 조사하였다.

이 중 후기구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된 지구는 3-2지구이다. 이 글은 대정동유적 3-2지구의 후기구석기유적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문이며, 자세한 내용은 종합보고서를 간행할 예정이다.¹⁾

*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연구원

1) 대정동유적에 대한 종합보고서는 2002년 상반기 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박성희, 2001, 「대전 대정동유적 발굴조사 성과」, 『호서지방의 중세고고학』 제4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호서고고학회, pp. 49~57.

2. 유적의 위치와 환경

대정동유적은 현재 대전시 서쪽을 남북으로 흐르는 갑천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옥녀봉(130m)과 운동봉(100m)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낮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서쪽으로는 금연봉(532m)에서 낙사봉(295m)에 이르는 봉우리들이 자리잡고 있다. 또 유적의 북쪽은 갑천의 지류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낮은 구릉들과 평야지대가 많아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유적이 위치한 대정동 일원은 거의 모든 지역이 주변의 산지에서 뺀어 내린 낮은 구릉과 저평한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간의 거주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유적이 위치한 대전분지의 구석기유적은 1990년대 초반에 둔산동·구즉동유적의 조사로 시작되었으며, 이 후 신대동·노은동·용호동유적 등지에서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노은동유적은 세석인석핵과 박편을 포함한 300여 점이 넘는 많은 멘석기와 3차례에 걸쳐 형성된 켜기구조가 확인되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3. 조사 내용

(1) 조사 경과

후기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은 3-2지구에서 확인되었다. 3-2지구는 해발 약 65m 정도의 낮은 구릉 말단부로 시굴조사 당시 고토양층이 확인되었으며, 길이 11.4cm, 너비 4.4cm, 두께 2cm의 호온펠스제의 석기 1점이 출토되었다. 조사에 착수하기 전 3-2지구는 北高南底의 경사를 이루고 있었으며, 조사지점의 바로 북쪽은 공사로 인해 깎여나간 상태였다. 따라서 이 깎여나간 면을 수직으로 굴토하여 먼저 층위를 파악하였다. 층위는 현 표토하 120cm 정도의 후대경작층 아래에서 켜기층이 조사되었다. 또한 3-2지구의 남쪽으로 경사를 따라 내려가면서 켜기층 상단에서 짙은 갈색점토층이 확인되었다. 이에 표토층을 제외한 짙은 갈색점토층과 켜기층을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수직 단면선을 기준으로 면적 1,089m²(330평)에 Grid를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하였다. Grid는 가로 5m, 세로 5m의 크기로 설정하고, 동서방향으로 6칸·남북방향으로 8칸의 총 48개의 Grid를 구획하였다. 그리고 Grid의 서쪽과 남쪽에 각각 1m의 독을 남기고 내부를 조사하였다. 조사중에 W₂S₇ Grid에서 시굴조사 당시에 출토된 석기와 동일한 석재인 호온펠스제 석기 1점이 짙은 갈색점토층에서 출토되었다. 이에 반해 W₂S₇ Grid 북쪽으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물이 출토된 남쪽 구역에 조사를 집중하기로 하고, Grid를 남쪽으로 1칸

더 확장하였다. 또한 조사지점 밖의 남쪽과 동쪽으로 두 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층위 흐름을 파악하였다.

(2) 층위

대정동 유적의 층위는 최하부의 기반암인 화강암 풍화토층-굵은 모래가 포함된 적갈색 점토층-토양썰기 구조가 발달된 적갈색 점토층-토양썰기 구조가 발달된 암갈색점토층-질은 갈색 점토층-표토층인 암황갈색 점토층의 순서로 요약되어진다. 층위는 총 6개로 구분되어지며, 다음과 같다.

- 제1층은 암황갈색 점토층으로 두께 약 10cm이며, 표토 교란층이다. 원래 제2층과 같이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이었으나, 후대에 표토가 삭평되고 경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자기편, 철기, 석영 및 호온펠스제(또는 규질철암) 박편이 교란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 제2층은 질은 갈색 점토층으로 유물포함층이다. 두께는 약 30~35cm이며, 입자가 매우 굵다. 이 층에서는 호온펠스제 세석인석핵과 박편, 흙날석기, 석영제 박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대정동유적에서는 이 층에서만 유물이 확인되었다.

- 제3층은 암갈색 점토층으로, 두께 약 80cm이다. 역시 고운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양썰기가 잘 발달해 있다.

- 제4층은 적갈색 점토층으로 두께 약 75cm이다. 역시 고운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층에서 이어지는 토양썰기가 발달하여 있다.

- 제5층은 적갈색 점토층으로 두께 약 100cm이다. 제4층보다 밝으며, 이 층에는 부분적으로 굵은 모래가 섞여 있다.

- 제6층은 화강암 풍화토로 이루어진 기반암층이다.

(3) 출토유물 및 연대

확장 조사하면서 질은 갈색점토층에서 길이 2.6cm의 호온펠스제 세석인석핵과 함께 동일한 석재의 격지들과 흙날석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러한 석기들은 약 30×10m 범위에서 집중 출토되었으며, 주변의 표토에서도 약간의 석기들이 노출되어 있었다.

유물이 출토된 질은 갈색점토층 바로 아래에는 추운 기후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썰기 모양의 토양구조가 발달하여 있어, 질은 갈색점토층의 연대는 토양썰기가 형성된 15,000년 전의 이전인 후기구석기시대의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남쪽 트렌치의 제2층인 질은 갈색 점토층에서 출토된 목탄을 방사성탄소연대측정한 결과는 사뭇 다르게 확인되었다. 유물이 출토된 지점은 교란이 심해서 목탄시료가 그 가치가 없었지만, 남쪽 트렌치의 경우에는 제3층의 썰기층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확한 위치에서 채집되어 가치가 높았다. 미국의 Ceochron Laboratories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19,680±90년 B.P.의 연대로 확인되었다. 최근 장흥리유적에서는 흑요석제 세석인과 세석인석핵이 출토된 토양썰기 구조보다 윗 층인 최상

층에서 방사성탄소연대결과가 $24,200 \pm 600$ 년 B.P., $24,400 \pm 600$ 년 B.P.의 연대가 나왔다. 이는 장흥리유적의 연대측정치와 함께 짙은 갈색점토층의 연대문제의 새로운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대정동유적은 둔산동, 구죽동, 신대동, 노은동, 용호동 유적과 함께 대전분지 내의 저평한 구릉 말단부에 형성된 후기구석기 유적으로 대전분지의 후기구석기시대 문화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정동유적의 일부지점에서 토양썰기층과 다량의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대정동유적 제II층의 갈색점토층에서는 호운펠스제 굽개와 세석인석핵 등이 출토되었다. 상부토양 썰기 윗면에서 세석인석핵과 같은 후기구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것은 노은동·용호동 유적과 함께 대전지역에서 몇 안 되는 발굴조사여서 대단히 주목된다. 호운펠스로 정교하게 잔손질하여 만든 굽개·세석인석핵·흙날·일반 격지와 석영제의 흙날과 석기들은 우리나라 후기구석기 최말기의 석기구성상을 반영하고 있다.

대정동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많은 유물들이 확인되어 당시의 석기구성을 온전하게 밝혀낼 자료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최근에 구석기학계에서 점차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2만~1만 년전 후기구석기의 종말과 중석기·신석기시대로의 전환기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